

LG 이형중, 7일 KT전 선발 제외...8일 추가 검진

등록 2019.04.07 13:26:08



【광주=뉴스시스】류형근 기자 = 24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9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LG 트윈스의 경기, 2회초 2사에서 LG 1번타자 이형중이 2루타를 치고 있다. 2019.03.24. hgryu@newsis.com

【수원=뉴스시스】김주희 기자 = LG 트윈스 이형중(30)이 추가 검진을 받는다.

류중일 LG 감독은 7일 수원 케이티 위즈파크에서 열리는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KT 위즈와의 경기를 앞두고 "이형중은 내일(8일) 추가 검진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형중은 전날(6일) 오전 병원에서 MRI 검진을 받고 오른 허벅지 단순 근육 멍친 진단을 받았다. 6일 KT전에서 휴식을 한 그는 이날도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다.

8일 재검진 결과에 따라 엔트리 제외 가능성도 있다. 류 감독은 "회복까지 3일 이상 걸린다고 한다면 엔트리에서 뺄 수도 있다. 확실한 상태가 된 후 복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올해 LG의 톱타자를 맡은 이형중은 12경기에서 타율 0.267(45타수 12안타), 1홈런 3타점을 기록 중이다.

한편, 이날 LG는 이천웅(중견수)-오지환(유격수)이 테이블 세터를 이룬다. 김현수(좌익수)-토미 조셉(지명타자)-채은성(우익수)이 중심을 이루고 김민성(3루수)-김용의(1루수)-정상호(포수)-정주현(2루수)가 뒤를 받친다.

포수 유강남은 체력 안배를 위해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juhe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